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8. 10. 22(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작 성 자	과장	김 진 원		
			사무관	배도석	주무관	김대현
		연 락 처	054-880-3167			

안동 임청각, 일제강점기 이전 옛 모습 되살린다

-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마쳐, 내년도부터 2025년까지 280억원 투입 -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280억원을 투입해 안동 임청각(安東 臨淸閣. 보물 제182호)을 일제강점기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정비한다고 밝혔다.

안동 임청각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1858~1932년)의 가옥으로 항일독립투쟁 과정에서 독립운동자금 마련 등을 위해 집을 내놓기도 하는 등 애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자, 9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역사적인 장소다.

문화재청과 경북도, 안동시는 일제강점기에 중앙선 철로 개설(1941년)을 이유로 훼손되기 이전의 임청각과 그 주변을 옛 모습에 가깝게 복원·정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1763년 문집 『허주유고』 속 그림인 ‘동호해람’, 1940년을 전후해 촬영된 사진과 지적도 등 고증이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종합적인 복원·정비 계획을 마련했다.

* 동호해람 : 석주 이상룡 선생의 조상인 고성 이씨 허주 이종약(1726~1773)이 발간한 문집 『허주유고』 속에 임청각과 그 주변 전경을 묘사한 그림

주요 내용은 멸실된 임청각의 분가(출가한 자식들의 가옥) 3동을 35억원을 들여 복원하고 철도개설로 훼손된 주변지형과 수목, 나루터 등을 22억원을 들여 옛 모습에 가깝게 복원한다.

또한, 임청각 진입부에는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념관을 건립(70억원)하고 주차장, 화장실, 관람로, 소방시설 등 관람 및 편의시설도 재정비(23억원)할 계획이다.

이의 시행을 위한 토지매입(70억원), 시·밭굴(25억원), 임청각 보수·복원(20억원), 설계용역과 기타(15억원) 등의 사업까지 합치면 총 28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복원·정비사업을 하려면 임청각 앞마당을 가로지르고 있는 중앙선 철로의 이전과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예정된 철로의 철거이전까지는 복원·정비를 위한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주변 토지매입, 밭굴조사 등 선행사업을 실시하고, 철로 철거 이후인 2021~2025년에는 훼손 건물 복원, 지형과 경관 복원,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임청각 복원·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 구역 확대 조정안을 이미 관보에 공고('18.10.8)한 상태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12월까지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에는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토지매입과 기본설계 등을 시행한다.

김병삼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과 올해 7월 3일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식 등에서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임청각의 옛 모습 회복사업 추진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있다” 며

“임청각이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정신을 기리는 살아있는 장소로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복원·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